

# 미국의 젓소개량 백년사(3)

## — 미국 대공황기와 제2차 세계대전시의 미국등록협회와 낙농가의 활동 —

### 머릿말

앞으로 7년후면 모든 농축산물이 개방되도록 되어있다. 7년-평상시 같으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짧으면 짧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소 긴 시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낙농인들이 당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개방에 대처하기에 누구도 결코 긴 시간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단 그렇다고 생각하는 낙농가라면 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는데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데 진실로 큰 고민이 있는 것이다.

축산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제각기 노력하여 방안을 연구해 내어야 하겠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우리 낙농인들 역시 나름대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해야 할 것인바, 여기서 가장 먼저 당장 시작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젓소개량을 통한 생산능력향상으로 경영개선을 이뤄가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젓소개량은 좋은 혈통으로 계속 몇대에 걸쳐 계획교배하여 우수한 새끼소를 만들어 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음은 낙농 선진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혈통관리를 하는 낙농가들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고, 또 많은 낙농가들이 매년 만두 이상의 젓소를 본 협회에 혈통등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루어 알 수 있으므로, 아직도 혈통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낙농가들은 앞으로 목장경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한 방법으로 올해부터 필히 개량을 시작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혈통개량의 방법을 몰라 본 협회에 문의를 하면 협회직원이 목장에 직접 현지출장하여 그 방법에 대한 지도를 한 후 젓소의 등록을 실시하는데, 등록할 때 계획교배를 위한 체형심사(선형심사)를 병행해 생산성향상과 생산수명연장을 위해 체형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계획교배용 정액선정표와 함께 해당농가에 통보하므로 낙농가가 혈통개량의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올해 중순부터 기초등록을 실시한다고 할 시, 1년후(1991년) 새끼를 낳을 것이고 그 소가 본 등록이 된다. 본등록된 소가 약 15개월령시(1992년 하반기~1993년 초)에 수태가 된다고 하면, 1년 후에 송아지가 태어나게 될 것이므로 (1993년 하반기~1994년초)이 소가 혈통등록이 되어 일단 3대의 혈통(족보)을 갖추게 되고, 더우기 등록할때마다 계획교배용 정액을 선정하여 새끼가 태어나게 되므로 상당한 개량의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이들소가 수태를 하여 새끼를 낳게되는 '95년말~'96년 중순의 소들은 혈통등록우에서 태어난 혈통등록우이므로(부·모가 모두 혈통등록우임) 더 우수한 유전적 자질을 갖춘 소가 될 것이란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97년 중순 수입개방 전까지는 다시 한번 혈통등록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낙농가들의 경영개선 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혈통등록우의 소들이 등록되지 않은 무적우

의 소들보다 평균적으로 생산능력이 더 우수했다는 결과는 본 협회 산유능력검정결과와 축협에서 각 도별 검정소를 통해 행하고 있는 능력검정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7년이라는 촉박한 시간을 앞두고 이러한 다소 우스꽝스런(?) 계산을 해 본 이유는 우리 낙농가들도 항상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은 스스로 찾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낙농가들은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지금까지 미국홀스타인등록협회 창립 백주년 기념호로 발간된 “미국의 젖소개량”이라는 책을 2회에 걸쳐 중축개량회지 (1988년 4월호 및 1990년 1월호)에 일부를 요약하여 소개한 바 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어려운 낙농의 현실을 맞이하여 어떻게 협회와 낙농가들이 활동했는가를 요약해 옮겨본다.

## 대공황시기의 극복

대공황기(1929년~1939년에 걸친 10년간의 미국의 대 경제공황)는 협회에 심각한 경영상의 압박을 가하였다. 이것은 협회로 하여금 경제적인 시련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막 시도된 젖소개량프로그램인 우군심사와 우군능력검정사업을 거의 사멸상태로까지 몰고 갔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식품자원 증대의 일환으로 젖소에 대한 필요성이 일게 되자 이들 두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다.

또 매우 좋은 아이디어였던 우유판매 홍보사업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홍보사업에서 맞이한 두번째 시련기였다. 첫번째는 1923년 10여만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협회가 홀스타인종 우유를 백색넥타음료(화이트 넥타)라는 상표명으로 시장홍보활동을 폈으나 낙농가들의 참여부족으로 실패를 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다.

농가지도사업부 부장 홀드씨는 그의 첫 사업으로 대공황기의 우유판매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30년대 후반에 “홀스타인 홀섬”이라는 이름의 판매전략을 만들었다. 이 방법은 고안당 시부터 우유 생산목장들을 염두에 두고 창안해 낸 것이므로 앞에 실패한것과는 달랐다. 그는 1940년에 이 사업안을 협회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아 1940년말까지 61명의 낙농가들로부터 참여서명을 받아 내었는데, 미국이 2차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우유판매홍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중간에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이 대공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자 경영손실이 해를 거듭하여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협회의 재정기반이 흔들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다행스럽게도 초창기의 협회 간부들은 협회재정상의 안정이 혈통등록사업을 떠받치는 핵심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1902년 예비비(준비적립금)를 설정해 놓았다. 등록사업의 물량이 떨어져 재정상의 압박을 받는 해에는 이 준비금덕분에 시련기를 극복하여 원활히 협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으며, 1916년이 되어 비축해놓았던 돈을 모두 사용해버리게 되자 회장이 주관하여 또다시 더 많은 준비금을 비축하게 됨에 따라 20년대와 30년대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 전쟁당시의 협회의 발전상황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홀스타인 젖소와 협회의 진로가 변경되는 계기를 가져왔는데, 그 후 40년동안 협회가 꾸준히 활성화되는 촉매가 되었다.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고능력우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1929년이후 처음으로 홀스타인 브리더들은 구매자의 수요에 충족되는 능력을 가진 소들만을 우시장에 내놓아 매매가 이뤄지게 되었다. 농후 사료가 귀해졌으므로 목장에서 수확한 사료작물만으로 사양관리하게 되었고, 격심한 인력난으로 낙농가들은 20두의 고능력젖소를 기르는 것이 보통정도수준의 젖소 20두를 기르는것보다 별로 노동력이 더 필요치 않음을 곧 알게 되었다. 대공황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군두수를 증식시킨 낙농가들은 곧 호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홀스타인젖소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2차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국군에게 식품을 보내자”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협회의 사무국장은 1942년 회원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통해 유제품의 공급을 통해 국군들을 격려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외치면서 미농무성자료를 인용하여 당시 미국유용 젖소평균산유량

이 4575파운드인 반면 능력검정(HIRT)에 참여하는 개량된 홀스타인종 젖소의 평균능력은 11,859파운드라고 혈통등록젖소의우수성을 선전하였다.

낙농가들로 보아서 전쟁으로인해 생긴 중요한 낙농발전중의 하나는 국가위생국 영양담당 전문가에 의해 균납용 유제품 매입 기준이 3.5% 지방 함유 우유로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크립라인논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협회 기술지도부장은 1941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선적용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가장 높은 부분만을 뽑는다는 목적에서 크립을 제외한 유성분으로 선택하였다”고 설명했다. 유지방보다 더 귀중한 성분이 우유중에 있다는 홀스타인 브리더들의 주장이 확인됨 셈이었으며, 이 결정은 홀스타인 사육농가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는데, 그 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우유중에 있는 광물질과 비타민 등의 성분이 인체의 건강에 지방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국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낙농산업에도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우유의 부패성으로 전국적인 유제품 보급이 제한을 받아오던것이 전지분유의 개발로 이 문제가 극복되었다.

전쟁의 발발로 인해 수천개의 훈련소가 전국에 생김에 따라 젖소시장과 우유시장의 확장으로 남부지방에는 많은 목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해 협회는 젖소의 심사와 개량에 유능한 전문인력을 그쪽에 배치해 홀스타인젖소 판매시장을 열도록 하였다. 한편 세계각처의 전장에서는 수천명의 미군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목장을 할 꿈을 가지고 홀스타인 협회에 자문을 구하는 서신을 보내왔는데, 그들이 귀국했을때 홀스타인 협회의 낙농가지도사업과 친척기에 있던 각 주(州)지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이 되었다.

### 낙농가 지도사업의 확장

협회는 이동수수료 중 일부를 수당형식으로 지도원을 운영하는 주(州)들에게 보조하여 줌으로써 그들 자치적으로 낙농가 지도를 하게 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들은 협회의 전국지도사업부 산하로 끌여들여 협회에서 직접 전문

지도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사업을 벌여나갔다. 협회의 전국지도사업부에 소속된 지도요원들은 매우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전국에 분산되어 오랜시간을 운전을 해가서 낙우회 모임이나 쏘장에 참가하여 홀스타인종에대한 선전을 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 홀스타인젖소의 인기가 높아감에 따라 브리더들은 젖소구입과 판매방법상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대응해 지도원 자신들도 역할을 바꿔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전쟁중이라 개솔린과 타이어사용에 대한 규제로 홀스타인젖소의 매매를 우편으로 연락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났다. 젖소구입 희망자들은 더 이상 구입할 소를 보기 위해 직접 오랜거리를 갈수 없게되었으므로 협회지도원(심사원)들의 조언이나 점수가 썩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점차 브리더들이 체형 심사점수를 선전가치로 크게 인식해감에 따라 우군심사사업이 새로운 역할로 활성화되게 되었다.(1942년도에 9002두가 심사되었는데 이것은 1941년도 수치의 세배에 해당됨)

협회의 지도원들은 브리더들의 요청에 따라 계획교배용 종모우를 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되자 협회의 농가지도사업이 도약하는 활력소가 되었을뿐 아니라 농가지도원의 이러한 역할은 장차 농가현장에서 선발·도태 계획교배 지침을 지도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 사무실내무 운영상의 문제점들

전쟁을 치루는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너무나 높은 지방량보다 보통정도의 지방을 함유한 우유를 선호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종 이용기에 담긴 균질유를 즐겨 마시게 되었으며, 따라서 유가공공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시유를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20세기 전반부의 반세기동안 선배낙농가들의 개량역점이 고지방함량이었던 점에 반해 보통정도의 지방함량을 선호하는 상황을 활용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으므로, 협회와 브리더들의 개량목표는 산유량의 증가와 적당한 유지방 함량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역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우유를 생산하느냐 하는 경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전시에는 식품부족으로원유생산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우유생산량증대를 요청받았으나 이러한것은 종전과 함께 없어지고 사양관리가 효율적인 고능력우를 길러야 높은 수익을 얻는 시대가 온것이다. 전쟁기간동안 홀스타인 품종이 급속도로 늘어갔고 젖소의 등록두수가 급격이 증가하였다.

홀스타인젖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수백명의 낙농가들이 이전에 취소한 소들에 대한 혈통등록증복원을 요청해 왔는데 비좁았던 협회사무실은 등록증 발급 신청서로 온통 메워질 정도였다. 이러한 업무량을 처리하느라 지도사업등 다른 분야의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갔다. 업무량이 과다하여 계속 등록증발급이 밀려갔으며, 전쟁에 참전하느라 인력이 빠져나가자 1943년에는 협회직원들 중 85%가 1년도 채 안된 경력을 가진 초심자들로 메워졌다.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 업무량 체화가 심각할 지경까지 악화되어 1946년 3월에는 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신청건수는 7만여개나 되었다. 바야흐로 협회운영의 절차와 경영방식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이다.

### 협회경영분석을 통한 개선책 마련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제반증명서들로 사무실은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서류들로 꽉 차게 되자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늘어 갔으며(1946년 한해동안 80명의 고용인이 그만 두었다)현장지도원들은 농가방문시 신청서 처리가 늦다고 잦은 항의를 받았다. 1947년에는 협회재정에까지

영향을 받아 대공항이후 처음으로 적자충당을 위해 예비적립금에서 돈을 뺐아 충당했다.

위기극복을 위한 조처가 곧 취해졌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힌트를 얻어 경영분석가를 고용하여 협회경영을 철저히 분석하였다. 회장, 재정위원회 의장, 사무국장 셋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협회창설 초기부터 수명의 지도자들이 전국에 나뉘어 협회가 운영되어 왔음으로 인해 이들 각기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간 협력체제가 원만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 경영은 사무국에서 주도하고, 이사회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문과 조언 및 정책을 세우는 역할만 하도록 함으로서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자는 보고서가 1947년 이사회에 제출되어 즉시 수락되었으며, 1948년 총회를 통과하여 광범위한 정관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마침내 노튼씨를 사무국장으로하여 다섯개의 부서가 생겼는데 이것은 농가지도부, 등록부, 사무실관리부, 검정부, 총무부 등이었다. 이사회가 취한 첫 조처는 1948년 낙농경영학을 전공하고 지방낙농지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럽리씨를 부국장으로 고용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이후 사무국장이되어 25년동안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1940년대가 끝나자 홀스타인협회의 개편된 운영체제가 확고한 정립을 하게 되었다. 사무실은 계속 비좁았고 추가로 고용된 인력은 없었지만 작업실적과 효율은 새로운 체제하에서 급속히 신장되어 나갔다. (이민형 역)

